

사람들을 치유하신 예수님

김웹리드

하루는 아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그의 집으로 와 주시도록 부탁했어요. 그의 딸이 병에 걸려 축복이 필요했거든요.



예수님께서 아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을 때, 12년 동안 병을 앓아 온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았어요.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에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.